

여야, 설연휴 앞두고 공천작업 본격 돌입

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20% 명단공개 할지 관심...공관위 재량 ↓

한국당, '물같이' 넘어 '관같이'...탄핵 이후 첫 총선 인적 쇄신 예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번주부터 '변화와 혁신'의 바로미터인 공천작업을 본격화한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대급 세대교체를 통한 미래비전 제시'를 목표로 내걸면서 당내 경쟁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반발, 새보수당과의 보수통합을 둘러싼 줄다리기로 상대적으로 시작이 늦은 만큼 설 연휴 전인 공관위 구성을 마치고 혁신공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목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원혜영 위원장)는 20일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설 연휴가 지난 후 다음 달 5일까지 서류심사를, 다음 달 7일부터 10일까지 면접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는 현역 의원들의 불출마 지역인 13곳과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사고지역위원회 2곳 등 총 15곳을 1차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15곳 외에도 추가로 전략공천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공천 작업에서 뇌관은 현역 의원 평가 결과 중 하위 20% 명단을 공개할지 여부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강철규 위원장)는 앞서 현역 의원들의 의정·지역활동에 대한 중간평가(45%)와 최종평가(55%)를 진행했다. 합산 결과 하위 20% 의원들은 경선 시 불이익(20% 감산)을 받는다. 현재 평가 결과는 봉인된 상태다.

공관위는 하위 20%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불복할 시 '48시간 이내 이의 제기'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르면 설 연휴 전에 통보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는 지난 17일 "이제 총선이 89일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모든 예비후보가 이의제기할 수 없는 공천을 하겠다. 투명한 공천이 선거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은 공관위원장의 재량보다는 시스템 공천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실제 원혜영 위원장도 최근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천 기준이 제시됐으며 중요한 경선들이 이미 1년 전 다 결정돼 공표된 상황"이라며 "과거와 달리 공관위의 재량이 크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은 지난 16일 공천을 총괄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임명하고 대대적인 '공천 관같이'를 예고했다.

그동안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건을 막아내기 위한 대치 국면에 이어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 세력과 보수통합 논의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총선 준비

비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당 내부에서도 통합을 기다리기 위해 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설 연휴 전까지 공관위 구성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다만 새보수당 등과 통합이 성사될 경우를 대비해 10명 이내의 공관위원 중 일부는 비워둘 가능성도 거론된다.

친이계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계파색이 강하지 않은 김형오 위원장은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는 말로 칼바람을 예고했다. 한국당은 탄핵 정국 이후 처음 치르는 총선이기에 어느 때보다 높은 수위의 인적 쇄신 요구에 직면해있다.

김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황 대표가 전권을 줬다"면서 "(황 대표에게) 나를 믿지 않으면 날 위촉하지도 말라고 했다. 이 자리를 감투라고 생각지 않고 죽을 자리를 찾아왔다고 생각한다"며 강도 높은 인적 쇄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신인 발굴과 육성, 여성 인재를 강조하며 '세대교체'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형 완전국민경선제를 한국당에서 실현해서 정치신인이 진입 장벽을 넘지 못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도 물갈이가 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기자회견 말미에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을 언급하며 "정말 내가 잘 아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그 칼날이 갈 수도 있겠다 생각에 반만하고 고민하고 이 직을 수락하지 않으려 했다"며 "사사로운 감정은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훗날 혁명'의 완수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 후반기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는 한편 새로운보수당 등 보수·우파 세력과의 통합을 달성해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다는 목표다.

서울=김윤호 기자



박지원 "죽 썰 개 주는 꼴 미래한국당 승자될 것" "4+1 정신으로 연합하자"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이 19일 총선 승리를 위한 진보세력 간의 통합 연대를 제차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거듭 제안 한다"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당권과·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신으로 군소 진보정당의 통합으로, 민주당·정의당과 호남에서는 경쟁, 비(非)호남권에서는 연합으로 총선에 임해야 승리한다"고 했다.

이어 "(그레이트) 총선 후 진보·보수 대통합으로 진보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또 "저는 어떤 경우에도 보수대통합은 안 된다고 단언했지만 그들은 반드시 대통합한다며 저를 비난했다"며 "물론 앞으로도 보수대통합을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성사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열된 진보와 분열된 보수는 총선 결과 예측이 불가능"이라며 "특히 미래한국당이 자매정당으로 창당된다면, 민주당이 대국인 약속만을 이유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하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죽 썰 개 주는 꼴로 미래한국당만 승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미래한국당 창당은 선(善)이며 진보세력의 통합 연대는 악(惡)임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는 "의식 수 부족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하나도 못하고 한국당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에 끌려다니면 문재인 정부 잔여임기 2년은 실패한다"며 "진보세력의 통합 연대 경쟁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의 길이며 진보정권 재창출의 정도"라고 강조했다.

뉴스1



한자리에 모인 민주당 인재영입 1~10호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10호' 인사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호인재 영입 발표를 마치고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나경원 지역구 '필승지역' 분류한 與... "반드시 이길 후보낼 것"

더불어민주당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를 필승 지역으로 분류하고 후보 물색에 나섰다.

동작구는 수도권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온 민주당에는 '아픈 손가락'으로 통한다.

2008년 18대 총선부터 내리 패배의 쓴잔을 마신만큼 이번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동작구를 탈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번 총선에서 동작구를 지역

은 기필코 이겨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길 후보를 내야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서울 종로구, 광진구와 함께 '서울 3대 격전지'로 꼽힌다.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직을 맡으며 떠난 종로구에선 이낙연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진구는 대증적 인지도가 높은 한국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승부처로 떠올랐다. 보

수야권 후보들이 강세를 보인 동작구를 역시 이번 총선에서 격전이 예상된다.

16대와 17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가 동작구에서 연거푸 당선돼 '땃밭'으로 여겨졌다. 그러다 민주당은 18·19대 총선에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활동한 정몽준 전 의원에게 동작구를 빼앗겼다.

이어 20대에서도 나경원 한국당 전 원내대표에게 이 지역구를 내줬다.

특히나 민주당은 지난달말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으로 인해 이번 총선에서 종전 예상치보다 10석가량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만큼 지역구에서 그만큼의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동작구를 반드시 탈환하겠다는 각오로 대항마 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동작구를 출마 후보자로는 이수진 전 관사와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전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을 지낸 강희용 동작구을 지역위원장 역시 이 지역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며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야 할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